

공공데이터로 실생활형 AI 솔루션 발굴

중기부, ‘OpenData X AI 챌린지’ 개최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공기관의 현장 데이터를 개방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혁신 솔루션을 발굴하는 ‘OpenData X AI 챌린지’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AI 모델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오는 11월 6일부터 28일까지 이번 챌린지에 참가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참가 자격은 모집 공고일 기준 창업 10년 이내의 스타트업이다. 이번 공모전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3개 기관이

과제를 출제했다. 각 기관은 자사가 보유한 양질의 현장 데이터를 가공·비식별화해 AI 스타트업에 제공한다. 출제 과제는 △중소기업 성장 및 위험 예측 서비스(중진공)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제공 AI(소진공) △중소기업 통합플랫폼 기반 지원사업 추천 서비스(기정원) 등 3개 분야로 구성된다. 공모전은 서류심사, 본선 AI 스타트업 쇼케이스 등 세 단계로 진행된다. 서류심사에서는 참가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알고리즘 개발 방향, 실행 가능성, 기술 완성도 등을 평가해 12월 초 15개 스타트업(과제별 5개사)이 본선에 진출한다.

본선은 12월 10일(수) ‘컴업(COMBUP) 2025’ 개막식을 시작으로 내년 1월 말까지 이어진다. 본선 진출 팀에는 각 과제별 전체 데이터셋이 제공되며, 팀당 1천만 원의 R&D(시제품 검증) 자금이 지원된다. 또한 과제 출제기관의 실무 담당자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실시간 피드백과 기술 자문을 받을 수 있다. AI 모델의 정확도와 완성도,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며,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용자들이 직접 테스트한 결과도 반영해 우승팀과 준우승팀을 선발한다. 최종 선정된 6개 팀은 내년 2월 초 개최되는 ‘AI 스타트업 쇼케이스’에서 개발한 모델을 발표·시연하고, 시상식에서 수상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수상 스타트업에 대해 창

업지원, 융자·보증, 연구개발(R&D)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챌린지에 앞서 중기부는 11월 6일(목) 온·오프라인 과제 설명회를 열어 참가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관별 과제 세부 내용과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 및 세부 정보는 K-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www.k-startup.go.kr) 또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우중 중기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모전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이 실제 사용하는 데이터를 AI 스타트업에 개방해 국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발굴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한국전력 전북본부와 지난 24일 타타대우모빌리티(사장 김태성)와 전력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친환경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력 계통 안정 운영 등 강화 맞손

한전 전북, 타타대우모빌리티와 전력설비 안정화 협약

한국전력 전북본부는 지난 24일 타타대우모빌리티(사장 김태성)와 전력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친환경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이날 타타대우모빌리티 군산 본사에서 열렸으며, 한국전력공사 연원섭 전북본부장과 타타대우모빌리티 김태성 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임원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력 계통의 안정적 운영 △전력 설비 유지보수 및 긴급 복구 지원 △친환경·안전 설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한전 전북본부는 축적된 전력 인프라 관리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타타대우모빌리티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지원하고, 타타대우모빌리티는 복

구 인력 및 자재 출입 지원 등 현장 협조체계를 구축해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타타대우모빌리티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 아래 친환경 경작이고 지속가능한 생산 기반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한전 전북본부 역시 국내 제조업 현장의 전력 안정성 확보와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타타대우모빌리티 김태성 사장은 “지속가능한 제조환경 구축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연원섭 한국전력 전북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국내 제조업 현장의 에너지 안정성 확보에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산물, 공공비축 포대버 매입검사 357개 검사장서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2025년산 공공비축 포대버 매입검사를 이달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357개 검사장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전북특별자치도에 배정된 포대버 매입 물량은 총 8만 3,254톤으로, 일반버 6만 8,842톤, 가루쌀버 1만 2,994톤, 친환경버 1,418톤이 포함된다. 매입 대상은 2025년산 매버 가운데 정부가 시·군별로 사전 지정한 두 품종(가루쌀은 ‘바로미2’)에 한하며, 일반버와 친환경버는 수분 13.0~15.0%, 가루쌀버는 15% 이하로 건조해 규격 포장제(대형 800kg, 소형 40kg)에 담아 출하해야 한다. 매입 대상의 품종을 부정 출하할 경우, 적발된 다음 해부터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 농가에서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수분 함량, 제현율, 피해립 등 품위검사 결과에 따라 특·1·2·3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별로 차등 지급된다. 기준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통계청)을 반영해 결정되며, 농가의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수매 직후 40kg당 4만 원의 중간정산금이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포장제 관련 규정도 변경됐다. 기존 포장제의 사용기한이 지난해 말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검사등급(특·1·2·3·등의)만이 표시된 신규 규격 포장제를 사용해야 한다. 이는 공공비축용 직물제 포장제의 표시사항 변경(2023년 3월 2일 개정)에 따른 조치다. /오상근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선도기업 지역별 대표자 협의회’ 개최

전주·남원·임실·순창 기업인 한자리에... 도의원·지역 산업 상생 방안 모색

전북테크노파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선도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주요 기업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2025년 제10회 선도기업 지역별 대표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이날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IT기업 (주)나우에서 열렸다. 자리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 관계자, 도내 선도기업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이재 의원이 함께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이날 김이재 의원은 참석 기업인들과 지역 산업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기업들이 겪고 있는 경영 애로와 정책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이어 진행된 (주)나우리 현장 탐방에서는 IT산업 생태계와 기술 트렌드를 살펴보고, 지역 기업 간 협력 확대 및 동반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서는 △기술 융합을 통한 성장 전략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인재 유출 대응책 △지역 특화사업 육성 등 전북 산업이 직면한 핵심 과제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올해 도내 전역을 순회하며 총 10차례에 걸쳐 지역별 대표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기관 측은 앞으로도 도의회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의 실질적인 애로를 해



소하고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이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종한 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은 “도의회에서 직접 현장을 찾아 기업의 이야기를 경청해주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소하고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이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종한 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은 “도의회에서 직접 현장을 찾아 기업의 이야기를 경청해주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 창립 56주년 맞아 JB플랫폼에서 ‘행운의 굿즈데이’ 이벤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창립 56주년을 기념해 56주년 D-Day 56일 행운의 굿즈데이 이벤트를 오는 12월 1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전북은행이 운영하는 금융애플리케이션 JB플랫폼에서 열리는 특별 이벤트로,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디지털 금융체임을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JB플랫폼은 VR 금융체험, 금융 성향 진단 금융 퀴즈 등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청소년들이 실생활 속 금융을 자연스럽게 배우도록 구성된 디지털 금융교육 공간이다. 특히 행사 기간 동안 방문한 학생들에게는 창립 56주년 기념 한정 JB굿즈가 추가로 증정돼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창립 56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운 은행으로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JB플랫폼 체험 신청은 전북은행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사회공헌부(063-250-7465, 7405)로 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찾아가는 기초연금 홍보’ 나선다

거주불명 어르신 대상 제도·신청 절차 안내... 12월 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이 한국노숙인복지시설 협회와 손잡고 거주불명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현장 홍보에 나선다. 공단은 오는 12월 5일까지 전국 노숙인 복지시설을 직접 찾아가 기초연금 제도와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제도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기초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국민이면 거주불명 등록 상태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인정액 등 선정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한 달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거주불명자 상당수는 신분 노출을 꺼리거나 가족·지인과의 관계가 단절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문자나 우편 등 일반적

인 행적 홍보로는 안내가 어렵고, 제도 대상임에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공단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거주불명자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안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에게 제도 정보를 직접 전달하고, 현장에서 신청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어르신들은 고객센터(☎365)를 통해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채무 문제로 입류 우려가 있는 분들은 ‘행복지킴이 통장’을 통해 안전하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상근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